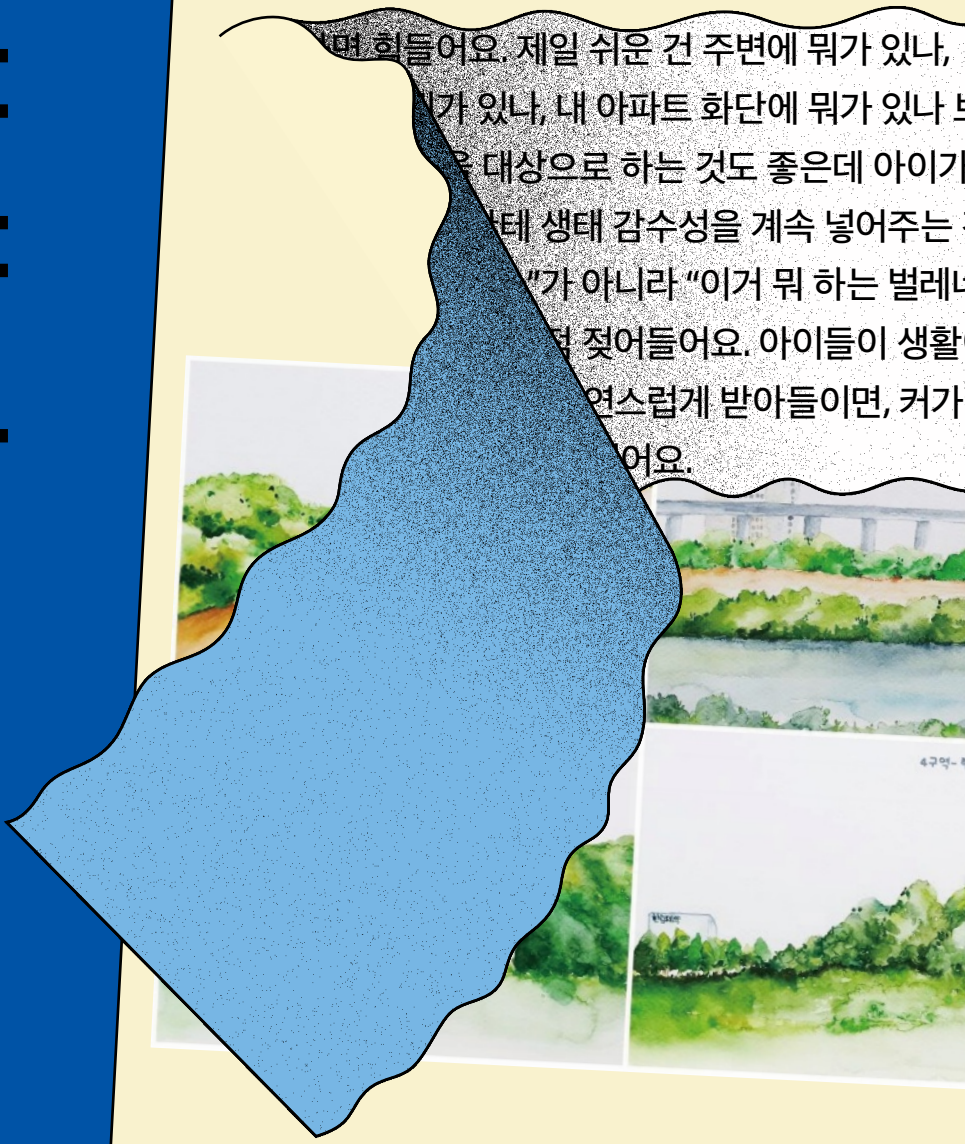
비하인드북

Behind book 지구별시민 편

며 힘들어요. 제일 쉬운 건 주변에 뭐가 있나,
가 있나, 내 아파트 화단에 뭐가 있나 보
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아이기
테 생태 감수성을 계속 넣어주는
"가 아니라 "이거 뭐 하는 벌레
젖어들어요. 아이들이 생활
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커가
어요.



Behind book 지구별시민 편

이 책은 〈용인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의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한 〈기록의-기록〉 with 만물작업소 프로젝트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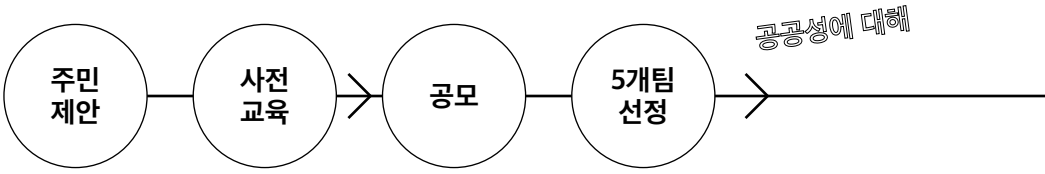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무언가를 작당한다는 것은 사실 반은 괴롭고 반은 즐거운 일이 되기 마련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고, 그럼에도 소소한 웃음과 찐한 교훈은 남게 되니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끝에는 '좋았다면 추억이고 아팠다면 경험이다.'라는 소회가 남습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갈등보다 웃음과 교훈이 조금 더 드러난 '잘된' 결과물이 성과를 증명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전해지지 않은 그 뒤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용인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의 운영에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는 대체로 사람들의 감정으로 불거졌다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즈음에는 결과물에 대한 보람으로 남아 무엇이 그 시행착오를 만들었는지 잊게 합니다. 우리는 시행착오의 순간을 되짚기 위해 그 이면, 이전의 과정을 관찰하고 묻고 기록했습니다.

플랜포히어는 인터뷰와 워크숍을 통해 〈용인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질문에도 다른 답answer을 들려주었고 때로 다른 질문에도 입을 모아 같은 이야기behind story를 들려주었습니다. 〈기록의-기록〉은 질문을 통해 프로젝트와 사람들의 연결을 되짚어 이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발견한 무수한 질문들은 우리 모두가 놓친 시행착오의 순간을 상기시켰고 우리는 그 질문과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용인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고 마을마다 한 장의 지도가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만든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갈등, 웃음과 교훈을 버무린 「비하인드북」과 더 나은 다음을 위한 「47개의 질문카드」를 남깁니다. 우리의 기록이 누군가의 또 다른 시작이 되길 바라며!

용인마을지도만들기 프로젝트 진행과정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획과 준비

지속적으로-오래 가는

내부자들의 소통

도시와 공공

마을과 사람들

아카이브 프로젝트 〈기록의-기록〉진행과정

1. 조사

〈용인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조사/관찰/기록을 위한 활동을 준비한다.

9월 중

2. 인터뷰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인터뷰를 통해 구성원에게 질문을 던지고 프로젝트 과정 중의 어려움을 스스로 발견, 파악하게 한다.

10월 5-9일 온라인 인터뷰
마을 모임 / 대학생 동아리
각 팀별 1회, 총 10회 진행

세대 간의 소통

통합 설명회 → 보수 교육 → 중간 공유회 → 결과 공유회

단국대 동아리 매칭

성공을 위한 실패? Design Thinking

MOU 체결 → 마을지도 만들기 협업 (리빙랩 프로젝트)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다른 것과 틀린 것

협력운영 논의 → 대학생 워크숍 → 마을 공동체 워크숍 → **비하인드북 제작**

아카이브 프로젝트 〈기록의-기록〉

용인문화재단 & 플랜포히어

3. 워크숍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주제를 돌아보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with 만물작업소

11월 12일 대학생 동아리 온라인 공유회 1회 진행
11월 15-17일 마을 모임별 오프라인 워크숍 각 1회, 총 4회 진행

4. 비하인드북

'지도가 만들어지는 과정', '지도에 담지 못한 정보'가 아닌, '지도를 만들기 위해 고민했던 시간의 흔적'을 담은 비하인드북(소책자)을 만든다.

12월 중

5. 질문카드

프로젝트 전체과정을 갈무리 하고, 다음의 기록 및 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질문카드를 제작한다.

12월 중

참가팀

지구별시민

마을에 개발이 시작되면서 점점 논과 밭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기 전에 주민들이 애정하는 경안천을 중심으로 사라지는 식생과 동물의 모습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지도는 경안천의 산책코스별 식생과 서식하는 동물을 온·오프라인으로 안내합니다.

대화한 사람들

김영욱 장은영 최원혁

with 단국대 동아리 **용적률**

"항상 교수님들이 말씀 하셨거든요. '도시 재생이 중요하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공동체랑 멀어져서 살면 좋은 삶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말을 듣기만 들었지 실증할 기회는 없었는데 마침 공고가 떴어요. '마을에서 사람들과 지도를 만들어 보지 않겠냐,' 해서 '어, 이거 괜찮을 것 같다.' 했죠."

‘나 거기 알아.’ 우리가 함께 아는 곳 경안천

기획 의도와 배경에 대해 듣고 싶어요.

김영욱 우리 마을에 1-2년 사이 건물이 엄청나게 생겨났고, 논밭도 있었는데 사라지고 있어요. 마을이 조금 더 개발되기 전에 지금의 모습을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태에 관심이 많은데,

이러다가는 식물이나 곤충의 길이 전부 사라질 것 같아서 그 길을 기록하는데 의미가 있고 경안천은 마을 분들이 다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학교 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어딘가를 나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의 의미에 관심이 갔어요. 경안천을 이용하는 각자의 시간과 목적은 다르지만 그 공간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어요. 경안천에서 자연을 이야기하면 마을 사람들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장은영 작년에 다른 마을공동체사업을 한 것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생태를 좋아하고 사진 찍기를 좋아하니까 일단 시작했어요. 경안천에 열심히 운동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경안천 주변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면 예쁘고 신기한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다녀보니 어른도 아이도 관찰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생태 환경을 책자로 정리해서 보여주면 한 번은 신경 써서 보지 않을까?' 생각했고 재밌을 것 같아 시작했어요.

최원혁 제가 용인에 들어온 지 한 3년 되어 가는데 경안천이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서 보는 경안천도 너무너무 예쁘고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경안천을 떠나 우리 주변의 생태적 자연환경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나요?

장은영 맞아요. 경안천을 시작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면 '작년에 봤던 것들이 올해도 있을까?'하고 관심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관심이 쌓이다 보면 반대로 '왜 없어졌지?', '왜 올해는 없지?' 궁금해하면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관심의 계기가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에 있는 자연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편하게요. 하나씩 관심 가지다 보면 조금씩 쌓여 커질 거 아니에요?

지금의 경안천은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주민들이 공간을 영유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도요. 저도 생태에 관심 갖기 전에는 몰랐는데 생태 관련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태 자원을 없애거나 다른 것들로 자연을 대체하니 생태계가 깨지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나더라고요. 이런 작은 문제들을 발견하고 알다 보면 관심이 점점 커지고 이게 단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국가, 나라와 나라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의미로 도서관 이름도 〈지구별작은도서관〉이거든요.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사람들이 조금씩 주변을 인식하며 살아갔으면 해요. 곤충 하나도 잘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우리는 '크게'가 아니라 '작게' 신경 쓰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제부터 생태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특별히 계기가 있었을까요?

장은영 계기는 도서관 관장님이죠. 관장님이 생태 공부를 하며 아이들을 만나고 산을 보면서 너무 좋으니까 저한테도 소개해주셨어요. 식생과 곤충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신기하고 즐겁더라고요. 하다 보면 같은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어떤 변화를 느껴요.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사람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구역일수록 변화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시작점은 별거 없어요.

김영욱 경안천은 누군가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걷고, 누군가는 산책하기 위해서 걷고, 누군가는 아침에 걷고, 누군가는 저녁에 걸어요.

"우리가 가는 그 길목에 그 꽃이 거기 피었어.", "아, 거기서 이런 곤충을 발견했어."라고 말하면 그곳을 다 알더라는 거죠. 누군가랑 얘기해도 "맞아, 거기. 나 거기 가 봤어.",

“나 거기 알아.”라는 얘기들이 마을 사람들 누구와 얘기해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인 거예요. 같이 가거나 같이 하지 않지만, 우리의 공통적인 어떤, 서로 다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그 공간에서 갑자기 같은 가족을 만난 듯한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하고 경안천의 이야기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람들의 변화를 기록하는 지도

프로젝트 진행과정은 어떠셨어요?

장은영 지도 이름은 〈우리 마을 산책길 생태 지도〉이고 함께하는 분들은 기본 열 명인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저희 세 명이 수시로 하고요. 아이가 있는 분은 참여하기 어려우니 시간이 될 때 가능한 선에서 움직였어요. 작년에는 식생 위주로 보고, 올해는 경안천이라는 큰 흐름을 잡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주기적으로 모니터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게 제일 큰 관건이에요. 나중에 자료를 다시 찾는 것보다는 질 좋은 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일단 그 작업을 많이 했어요. 제가 답사를 가장 많이 했으니, 사람들과 같이 나가면 설명도 해주고요. 얘기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면서 그 전에 어땠는지 변화된 걸 같이 찾아보았어요. 아는 것들도 있지만, 또 모르는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니까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김영욱 사실 마을지도를 멋있게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마을지도를 만드는 것은 결과로 놓고 만나서 이곳의 꽃도 좀 알아보고, 곤충도 알아보고, 사진도 서로 찍어보는 활동이 주였어요. 그런데 사업 중간에 대학생들하고도 같이 하게 되고 또 문화재단에서 같이 하게 되었어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는 것이 너무 좋긴 한데, 그러다 보니 결과물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솔직히 부담스럽고 힘겨웠어요. 저는 지도가 어떻게 나와도 괜찮아요. 본래 지원사업을 한 목적은 마을 사람들의 만남 또는 활동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는 지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변해갔어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최원혁 하나는, 그전에는 경안천에서 그냥 사람만 보였어요. 경안천은 예쁘고 사람이 운동하는 곳인데 이 프로젝트는 생태에 더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경안천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식물 찾아보면서 그렇게 많은 동식물이 우리 주위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종류며 그 개수가 매우 놀라웠고 옛날에는 그냥 큰 새, 작은 새, 큰 물고기, 풀 뭐 이런 거였다면

요즘에는 '아, 저건 가우리!' 무슨 새 이름이 나오고 이런 풀, 저런 풀, 좋은 풀, 나쁜 풀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 점이 인상적이라면 좀 인상적이었고, 산에 올라갔는데 사마귀 비슷한 것이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많은 거예요. 작년에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생태계의 변화가 우리 눈으로 직접 느껴진 것이 좀 충격이었어요. 나빴다, 좋았다가 아니라 개수가 그렇게 변하는 걸 TV나 '동물의 왕국' 말고도 직접 볼 수 있어서 놀랍고 인상적이었어요. 그전에는 무슨 책을 봐야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개념이었고 사실 그것도 책과 TV의 얘기지 내 주위에 있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장은영 저는 모니터링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어요. 올해 경안천에서 물총새를 발견했어요. 소리를 한번 들었는데 그다음부터 물총새를 찾아서 주야장천 나갔어요. 새벽, 아침, 점심, 저녁 같은 장소를 계속요. 보니까 물총새가 있는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찍었던 장소에 계속 나가서 다시 찍고, 다시 찍고. 제가 정확하게 사진을 배운 건 아니고 가지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로 찍는 거니까 최대한 그 선에서 제일 잘 나올 수 있게 찍으려고 수십 번 갔어요. 많이 기다려야 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새를 찍으러 갈 때는 많은 사람하고 함께 움직일 수 없어요. 소리가 나서, 그래서 혼자 나간 시간이 더 많기는 해요.

김영욱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열심히 해준 우리 장은영 실장님께서 새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열심히 해서 하루에 네다섯 번씩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도서관에서 사라졌던 것이 너무 기억에 남고요. 처음에는 우리 도서관 뒤에 있는 나무에 새가 새끼를 낳았어요. 너무 신기해서 그걸 찍은 게 시작인데 그 새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실장님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또 있는지 보았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아이들하고 일요일에 같이하다 보니까. "저거 뭐죠?"라며 아는 척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였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자연과 자꾸 친해지면 생태 감수성이 높아지겠구나 싶었어요.

생태 감수성 교육은 환경교육을 하기 이전에 이뤄져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자연과 친해져야 환경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본

아이들의 그런 변화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다음에 제가 아는 식생의 이름과 여기 어르신들이 아는 이름이 너무 다른 거예요. 사전적 이름과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 이런 걸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마을지도 만들기를 할 때 생태 감수성을 고려하신 거예요?

김영욱 네. 같이 마을지도 만들기라는 목표로 지도를 잘 만들고 싶다는 것보다는 이런 활동으로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의 생태 감수성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첫 번째 목적이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지 않을까?' 싶었고, 해보고 나니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할 수 있는 활동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풍경으로 바라보던 하천길, 가까이에서 만난 살아있는 것들

마을지도를 만들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나, 나에 대해서
새로이 알게 된 점이 있을까요?

최원혁 마을지도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녔던 경안천길이 너무 예뻐 보이고 좋아졌어요. 거기에 무슨 좋은 풀이 있든 나쁜 풀이 있든 새가 있었든 간에 그 길에 너무 정이 들어버린 거죠.

내 마을이 더 좋아졌다는 표현을 예쁘게 포장했을까요? 우리 집에서 경안천이 보이는데 이전에는 멀리서 보는 경안천이 너무너무 예뻤다면, 지금은 다가가면서 보이는 풀이나 벌레나 새들도 눈에 보이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여요. "아,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마을이구나."라고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다 예뻐 보여요.

장은영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혼자서도 신나하는 걸 보고 '나 진짜 이렇게 사진 찍는 것, 기다리는 것도 좋아하는구나. 발견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원래의 저는 사람들과 무언가 공통된 것들을 같이 하다 보면

낯을 가려 친해지기 어려웠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조금 더 편해져서 말 붙이기가 편해졌어요. 같은 점을 더 많이 발견한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같이해도 좋을 사람이구나. 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구별작은도서관〉 이름도 좋은데 내가 여기 같이 소속돼 있어 좋아요.

김영욱 저는 아까 말한 관계 같아요. 제가 공간에 대해 의미를 둔 건 맞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자주 다니는 경안천 산책길에서 생태 모니터링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경안천에서 자연과 식물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났는데 어느새 그 관계가 약간 탄탄해졌어요. '우리가 같은 마을에 사는구나.', '우리가 같은 이웃이구나.', '우리가 정말 같은 동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거기 알아요."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계적 의미가 더 두터워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것, 같은 공간을 누린다는 게 또 다른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 연대의 의미를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의미가 커졌던 것 같아요. 물론 생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작년에 없었던 꽃과 곤충이 생기고 "여기 이런 새도 있었어?" 발견하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새가 몇 종류 안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33종이 넘어가요. 새를 보면서도 신기했지만, 그 이면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떤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때 훨씬 더 와 닿았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아쉬운 게 있었나요?

최원혁 제가 생태를 잘 모르고 시작했어요. 진행자라기보다는 이제 배우는 사람으로 시작했죠. 제가 조금 더 알았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모여서 함께 알아보고 사진 찍는 것은 좋았어요. 그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조금 버겁게 시간을 냈지만 그 자체가 힐링이 되었어요. 마치 산책하는 것 같고, 시간 내서 운동하러 가는 사람처럼 굳이 시간 내서 자연을 보러 가면 또 기분이 좋았어요. 다른 사람도 한 번쯤 경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덧붙이자면 활동하고 조사하는데 인원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요.

장은영 혼자 사진 찍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한 번에 훅 모여줬으면 좋겠는데, 훅이 아니라 교대로 와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슬비에 옷 젖듯이 슬슬 젖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훅 오시겠죠. 맨 처음에는 '어떤가?' 이렇게 왔다가 하다 보니까 '괜찮네!' 하면서 쓱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첫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요. 저도 어디 가서 보면 기웃거리다가 '어, 나하고 안 맞아.'하면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2-3년에 한 명만 건져도 굉장한 소득이거든요. 진짜 진국 건지는 거잖아요.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에게 항상 열려 있고, 억지로 하는 건 저도 힘들어요. '들어왔으니까 넌 해야 해.'라고 말하면 저는 도망가요. 다른 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찬찬히 가야 해요. 일단 급하다는 건,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욕심이 생기다 보면 어긋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김영욱 [용적률]팀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혼자는 할 수 없는 온라인 지도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마을지도가 온·오프라인 두 가지예요. [용적률]팀이 왔을 때 마을지도 만들기 지원사업 기획은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그 학생들은 뒤늦게 마을하고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마을과 대학생팀별로 매칭됐는데, 이미 기획이 정해져 있어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없었어요. 활동을 보조만 할 수 있었고 우리는 [용적률]팀이 잘 모르는 걸 계속 설명해야 했어요. 대학생들은 마을 사람들과 활동하는 시간이 다르니까 만나기 위해 별도로

시간을 냈어요. 계속 우리가 활동을 연결하고 알려주면서 이중으로 일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또 [용적률]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던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듯한 점이 아쉬웠어요. '기획을 같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데도 저희가 하는 걸 충분히 이해해주고 또 생태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도 내줬어요. 어쨌든 결과물로 온라인 지도가 나왔다는 게 저로서는 좋았어요. 아쉬운 건 '충분한 소통을 못 하지 않았나?'라는 것.

더 나은 다음을 위한 시행착오들

내년 〈마을지도 만들기 활동〉의 참여자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또는 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장은영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각각 역량이 달라요. 그 역량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보통 딱 나눠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졌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게 맞는지 생각 안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워요. 관장님이 행정적으로 혼자 다 하는데 제가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긴 하지만 저는 다른 일,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이쪽에서 그만큼 해주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관장님이 제게 행정까지 하라고 했으면 저는 사진이고 뭐고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김영욱 **〈마을지도 만들기〉는 기록에 의미가 있어요. 공간을 기록하는 의미도 있고 우리의 시간 흐름 속에 나의 어떤 개인 생활 또는 마을 사람들의 어떤 시간을 기록하는 것 같아요. 커다란 역사만이 역사가 아니고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과 시간, 공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향으로 생각을 발전시키면 재밌는 지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이 공모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기획하고 다른 분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사실은 함께 모여서 기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처음부터 기획을 함께할 수 있다면 정말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남길 것인지 어떤 지도를 만들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지도는 제가 사는 공간이자 2021년 나 자신의 기록이기도, 우리 마을의 기록이기도 해서 저한테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결과물로 나오니까 가치가 있고 다음에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기록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도라는 게 되게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양성으로 지도를 너무 넓게 확장을 해놓으면 방향성을 잃어서 조금 더 작고 구체적인 지도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태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장은영 일단 흔한 것부터 가는 게 제일 편해요. 시작하는 시점에서 너무 어려운 걸 시작하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걸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제일 쉬운 건 주변에 뭐가 있나, 산책하는 길에 뭐가 있나, 내 아파트 화단에 뭐가 있나 보는 게 제일 쉬워요.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아이가 있다면 같이 보면서 아이들한테 생태 감수성을 계속 넣어주는 것도 좋아요. "이건 벌레예요."가 아니라 "이거 뭐 하는 벌레네?" 말하다 보면 아이들이 점점 젖어들어요. 아이들이 생활에서 같이 있는 곤충과 식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커가면서 생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어요.

최원혁 요즈음 공사를 하니까 이전에 왔던 새들이 다른 데로 가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지도에 길도 바뀌었고 동식물도 바뀌고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바뀌는 것들이 같이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꼭 지도나 길,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나 그때 이용했던 사람들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영욱 제가 보기에는 논밭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없어질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동네는 두 달에 한 번씩 건물이 턱턱 들어서는데 더 변화하기 전에 기록을 계속해나갈 생각이에요.

공모 사업이나 지도 만들기는 아니더라도 계속 축적되는 기록은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공간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각각 느끼는 게 다른데 그 다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같은 곳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슬비에 옷 젖듯이, 함께 이슬비를 맞은 사람들

마을지도 만들기에는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요?

장은영 가치라는 것보다 그냥 재미있는 일. 재미있는 일이고 제가 좋아해요. 자료 찾는 건 힘들지만 제 만족인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뭔가를 계속한다는 건 같이 하는 재미가 있어서예요. 같이 하면 좋잖아요. 좋은 사람들끼리 같이 하니까요.

김영욱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말 중의 하나인데 그거인 것 같아요. "기획을 같이해서 활동했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거 하나랑 마을지도 만들기의 목적을 조금 더 분명하게 가져갔어야 한다는 것.

지도의 기록이 우선인가 아니면 지도를 매개로 한 사람들의 만남과 활동이 우선인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 중간에 저 스스로가 갈등, 고민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활동을 목적으로 두고 사람들을 모으고 싶었고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길 원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자꾸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저 스스로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지 못해 아쉬워요.

그래도 함께 활동하는 것은 너무 재밌었어요. 모니터링하면서 단순하게 모니터링만 하지 않고 단풍돼지풀도 제거했고요. 인체 유해 식물을 제거도 하고 환경 정화 운동으로 하천에 쓰레기를 주우면서 아이들이 "갑자기 우리 동네가 이렇게 지저분했어?", "깨끗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말들에서 활동의 의미를 발견했어요.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깨끗한 마을에 살고 싶은 나의 권리, 안전한 마을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까지 이야기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우 힘들기도 했지만 의미가 있어요.

장은영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열심히 활동하면서 프로젝트가 재미있는 활력소가 되었어요. 보통 활동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처질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는 머리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였어요. 움직임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건 저에게 큰 활력이었어요.

왜 비하인드북이 되었을까?

플랜포히어와 〈기록의-기록〉을 준비하며

용인문화재단 서혜인 "활동 과정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록이 모이면 또 다른 발현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작년 문화도시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 청년 활동가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결과 지향적으로 사업이 흘러갈 때 우리는 과정의 소중함을 잊기도 하고, 각자가 발견한 소중한 이야기들이 공유되지 못한 채 묻혀버리기도 합니다.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후 한참 동안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것 또한, '과정은 사라진 채 결과물만 남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이었고, 이것이 비하인드북 제작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결과에 도달한 사람들은 과정이 휘발되어 버렸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아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기록하지 않으니 기억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가치를 그 즉시 알아채지 못해서, 온 감각들을 결과물에 집중하느라, 또는 빠른 속도에 떠밀려가느라 우리는 과정을 놓치곤 합니다. 모래를 체에 밭치면 굵은 모래만 남고 나머지는 흩어지는 것처럼, 관찰자의 시선과 감각에 섬세하게 날이 서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 마련이니까요.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의 아카이브 작업을 처음 [플랜포히어]에 의뢰했던 것도, 지도를 만든 사람들과 지도가 만들어진 과정을 짚어보고자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참여자들이 지도에 담아내지 못한 소중한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 좀 더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기획자들의 체로 다시금 걸러보기 위해, 참여자 스스로 운영과정을 반추해보며 놓쳤던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을지도를 조금 더 예쁘게 포장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하인드북이 마을지도를 만든 마을공동체와 대학생 동아리에게는 지난 과정을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앞으로 지역 기반의 활동을 잘 해내고 싶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가는 아니지만 흥미롭게 마을지도를 펼쳐 보았던 누군가가 있다면 한 장의 지도 이면에 담긴 이웃들의 고민과 노력을 따뜻한 시선으로 한 번 더 바라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은 날들을 위하여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내는
〈기록의-기록〉 비하인드 워크숍을 진행하며

만물작업소 이번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분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그 시간을 지나왔는지 그 과정을 천천히 곱씹고 더듬어 한곳에 잘 모일 수 있도록 〈비하인드 워크숍〉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업 종료 후 남겨진 몇 개의 결과물은 프로젝트를 이끈 이들이 가지는 각각의 시선과 프로젝트 중에 생긴 크고 작은 마음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쪽에 남아있는 아쉬움 모두를 읽어 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따를 누군가에게는 이 비하인드 북에 남겨진 이야기가 어쩌면 앞으로를 위한 작은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바람을 가지고 숨 가쁘게 달려오느라 잠시 제쳐둔 이야기를 떠올려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기록에 담긴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싶은 마음.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주변 환경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 한동네 안에서 커가는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돌이킬 수 있는 고향에 대한 추억을 그리며 시작되었고 떠올려보니 지나온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아 부대꼈던 마음들까지도 어렴풋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공간을 살아간대도 많은 사람이 가진 생각은 너무도 여러 가지 모양이기에 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걷기 위해서는, 쏟아야 할 힘과 시간의 크기가 절대 작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종착지까지 부단히 걸어온 분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우리가 마을 지도를 만들게 된다면'이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마을 입구를 지키는 오래된 박물관에 차곡차곡 쌓인 사소한 관찰과 기록들을 상상하거나, 조금 더 재미있는 모습을 가진 지도를 만나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동네가 생긴다면 그때는 이번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분들의 뒤를 따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들이 그 출발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그 출발선 위에 우리도 서기 위해서. 옆자릴 둘러봤을 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곳에서 작디작은 그림이 그려지고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웅성거림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다섯 개의 마을,
다섯 개의 이야기

비하인드북 편집소감

정다정 길을 찾을때면 핸드폰 속 지도를 꺼내어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설정한 목적지를 가기 위해 이리저리 방향을 맞추면서 현재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덕분에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로 한 번에 가기도 하지만 가끔은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을 도통 이해하지 못해 조금 헤매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중간에 경유로 담은 중간 목적지 때문에 더 복잡하게 길을 걷다 겨우 목적지를 찾기도 합니다. 세세하게 설계된 지도도 이해되지 않아 이 길로 저 길로 걸을 때가 있는데 마을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지도라니 더 궁금해졌습니다.

다섯팀은 각 지도에는 '무엇'을 담았습니다. 생태, 문화재, 재능을 가진 인적 자원, 시장, 오일장. 저의 일상에서 크게 의미를 두고 오래 여러 번 관찰하기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오래 여러 번 둘러보고 기록하고 보내는 활동을 1년 가까이 했습니다.

단순히 기록만 한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만들어진 지도의 모양새를 떠나서 마을공동체 분들과 단국대 대학생 팀들에게 가장 먼저 수고했다는 말을 가득 건네고 싶어졌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방역이 중요해지면서 약해진 관계들을 다시 잇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마을 지도를 만든 팀들의 인터뷰를 한 편을 읽고 나면 저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글마다 공통으로 '그만'과 '다음' 이야기가 보았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중간에 '그만둘까?'를 고민하였지만, 결말에는 어떤 '다음'을 상상하는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인원으로 만남을 규정지을 정도로 함께 사는 것이 조심스러웠던 2021년에 함께하기를 고민하였던 분들이라면 위드 코로나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때가 오면 더 멋진 다음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다음 지도를 만드는 일에는 경로 이탈과 재검색이 원활하게 이뤄져 목적지를 가는 일들이 즐겁기를 다정히 바랍니다.

Behind book
비하인드북: 지구별시민 편

2021년 12월 발행
발행인 용인문화재단

편집 플랜포히어, 정다정
대화한 사람들 김영욱, 장은영, 최원혁
디자인 플랜포히어

용인문화재단
Yongin Cultural Foundation

용인문화재단
Yongin Cultural Foundation